

No.143

Japan Weekly Digest

2012. 8. 25 ~ 2012. 8. 31

- ① 특집 : 한·일관계의 긴장과 경제적 영향
- ②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 ③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특집 : 한·일관계의 긴장과 경제적 영향

- 한·일간 비경제적인 문제로 긴장국면이 초래된 적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으나,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독도문제, 역사문제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띤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한·일 양국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 옮겨 불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당장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했던 과거와는 분명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한·일 경제관계의 주요 현황

- 일본은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대일무역의존도는 10%
 - 수출면에서는 일본이 3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며 대일수출의존도는 7%
 - 수입면에서는 일본이 2번째로 큰 수입상대국이며 대일수입의존도는 13%
- 한국은 일본의 무역에서 3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對韓무역의존도는 6.3%
 - 수출면에서는 한국이 3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며 對韓수출의존도는 8%
 - 수입면에서는 한국이 6번째로 큰 수입상대국이며 對韓수입의존도는 4.7%
- 산업구조면에서는 한·일의 산업구조가 유사해지고 가운데,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 의존
 -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산업에서 산업내무역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
 - 한국은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부품·소재)와 자본재(제조 장치·설비)를 일본에 의존
- 한·일간 무역수지면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가 누적되어온 가운데, 2010년에는 대일무역적자가 361.2억달러로 과거 최고를 기록, 2011년에는 일본의 지진발생, 일본기업의 대한 부품조달 증대 등으로 286억달러로 축소
- 일본의 대한투자에서는 근년 매년 10억달러~20억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소재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음. 특히, 한국의 대형 수요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투자가 많음.
- 제 3국에서 한·일 기업간 협력에서는 최근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등의 분야에서 한·일기업간 제휴가 활발

- 양국간 경제협력면에서는 비즈니스서미트·라운드테이블 운영을 비롯하여 한·일 간 부품소재 협력, 한·일간 중소기업 협력, 한·일간 환경협력 등이 미션 과제, 기구·체널의 운영 및 협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한·일경제의 상호의존

			2000	2005	2010	2011	2012년 상반기
무역	수출	한국의 대일의존도	11.9%	8.5%	6.0%	7.0%	7.1%
		일본의 대한의존도	6.4%	7.8%	8.1%	8.0%	7.7%
	수입	한국의 대일의존도	19.8%	18.5%	15.1%	13.0%	12.4%
		일본의 대한의존도	5.4%	4.7%	4.1%	4.7%	4.6%
투자	한국의 대일의존도 (외국인투자)		16.1%	16.3%	15.9%	16.7%	37.1%
	일본의 대한의존도 (해외직접투자)		3.4%	3.8%	1.9%	2.1%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 일본의 對韓 경제적 대항 수단

- 한·일간 긴장국면에서 일본측이 검토하고 있는 對韓 경제적 수단으로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일본 재무상), 한국 국채의 구입 보류(일본 재무상), 對韓투자나 무역 등에 대한 마인드 변화 조성(일본 경제산업상), APEC 각료 회의에서 한·일 2국간 회담 보류 등

□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 일본의 對韓 경제적 대항 수단이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음.

① 한·일간 자본·금융협력

-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의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임.
-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모두 6748억원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 자금의 1.7%에 불과
-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비중은 지난 2008년 말에는 2.1%였으나 최근 1%대로 떨어짐. 채권시장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일본계 자금의 비중은 0.7%에 불과

-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된 일본 자금이 적은 것은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
-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더라도 자본시장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통화 스와프 협정은 외환 위기가 닥친 상황이 되어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차피 일본 정부가 보유한 한국 국채는 현 시점에서 없기 때문임.
- 한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국채의 구입 보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오지 않았으며, 보류하더라도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채의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도 한 이유임. 한국 국채가 작년부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올해 인기가 더 높아져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임.

② 일본의 對韓투자

-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에다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무역 등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 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 식의 견제 발언을 함.
- 그러나 일본의 대한투자가 한국의 FTA 활용, 한국의 대형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수요보장성 성격이 강한 투자라는 점 등, 경제적 이점과 연계된 투자이지, 결코 시혜성 내지는 선심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선을 제 3국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③ 한·일간 무역 및 FTA

- 상기와 같은 일본재무상, 경제산업상의 유보·재검토·견제 발언은 양국 경제 현안과 연관된 첫 보복성 조치인 만큼, 무역 등 경제관계로 불뚝이 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
- 한·일간 무역에 대해서도, 대한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한·일간 무역활동이 교란, 축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한·일 관계 악화가 업종에 따라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음.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연예·관광 업종은 경우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요청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온 한·일 FT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내에서도 2004년 이후 교섭이 중단된 한·일 FTA는 교섭재개가 멀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재개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무레벨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도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세라는 것
- 그러나 최근 한·중·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일 FTA에 애가 닳는 것은 일본이라는 점에 비추어 한·일 FTA에 대한 악영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임.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일간 긴장→한·일경제관계에 파급이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시장면에서 악영향과 공급면에서 악영향으로 구분됨.
- 시장면에서 악영향은 한·일 경제관계가 교란됨으로 말미암아, 대일수출의 감소에 따른 수출감소, 공급면에서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자본재 등 생산재의 대일수입 차질에 따른 공급난 등임.
- 이러한 악영향은 작년 일본대지진 발생으로 우리경제가 일종의 반사이익의 형태로 받았던 플러스 영향과는 반대되는 마이너스 영향임.
- 즉, 작년의 일본의 대지진이 우리경제에 미친 플러스 영향이, 일본의 對韓 수입증대(일본제품→한국제품), 한국의 대일부품·소재수입 감소(일본제품→제3국 제품)라면
- 앞으로 한·일간 긴장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對韓 수입감소(한국제품→제 3국제품, 일본제품), 對韓부품수출 축소(제3국 수출)등으로 시장과 공급면에서 타격이 예상
- 그러나 한·일간 긴장국면이 장기화·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됨.
- 그 이유의 첫째는, 일본이 대한 경제적 대항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한·일 경제관계를 교란시키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임. 특히 한·일간 투자나 무역과 관련해서는 시장원리,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매우 강도가 높고 리스크가 큰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임.
- 둘째는, 긴장국면이 한·일 경제관계에 파급된다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대일의존도면에서 과거 한때는 대일 편중이라고 할 정도로 과도했는데, 지금은 대일의존도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교란 → 한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 수 있을 것임.
- 셋째는 한·일간 산업구조가 과거의 보완관계로부터 유사성을 높이면서 경합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한·일 경제관계 축소에 따른 우리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

□ 결론

- 거의 40년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망시 단교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한·일간 긴장국면이 지속된 적이 있었음. 당시는 우리의 경제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일본에 크게 뒤져 있었기 때문에 단교 등 최악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란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었어서 결국 우리가 양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음.
-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의 경제력, 산업기술력이 커지고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에 이르렀음. 물론, 지금도 핵심부품 등의 분야는 물론 시장이나 공급력의 대일의존도가 크기는 하지만, 당시에 비하여 한·일 긴장국면 → 한·일 경제관계에 파급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는 감내할만한 수준이고 또한 한·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임.
- 다만 긴장관계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폭과 깊이가 커지고 양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임.
- 그러나 일본이 실리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한·일간 긴장국면이 양국간 경제관계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이번 한·중·일 FTA교섭 회의에도 독도문제와는 별도로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면에는, 만약 독도문제와 연계시켜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일본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
- 그러나 양국간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장치가 가동중단되는 경우, 민간기업들의 자유도가 낮아져 경제적 원리나 효율성을 무시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한·일 경제관계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양국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한·일간 긴장국면이 장기화·악화되지 않는 동시에 경제논리나 시장원리와는 별도로 해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노력이 한·일 모두에게 필요

②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닛산자동차	2012.8.25	자동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직접투자/생산능력 증강투자, 연산 10만대, 투자규모 100억엔
노무라총합연구소	2012.8.15	조사·연구	한국	직접투자/지점에서 현지법인 승격
참천제약	2012.8.25	제약	중국	직접투자/안약 일관생산, 전공정 현지화
NEC	2012.8.27	인프라건설	브라질	도시정비/차세대도시구축사업 참여, 수주규모 100억엔 정도
마쓰다	2012.8.28	자동차	중국/장안기차	자본제휴/장안기차와 합작으로 연구개발거점 설립, 출자비율 50%
후지필름	2012.8.28	업무지원사업	호주/살마트	직접투자/사업매수, 매수가 약 307억엔
대일본인쇄	2012.8.28	포장재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제조거점 건설, 투자규모 30억엔
다이킨	2012.8.29	공조기기	미국/굿맨글로벌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 약 3,000억엔
파나소닉	2012.8.29	태양광발전	미국/코로널매니지먼트	업무제휴/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히타치테크놀로지	2012.8.29	반도체 제조장치	미국	직접투자/반도체 기술개발센터설립, 투자규모 약 24억엔
덴츠	2012.8.29	광고	인도/타브르트	직접투자/기업매수, 주식의 51%취득
센코	2012.8.20	물류	카자흐스탄/국영철도회사	기업간제휴/물류사업에 관한 포괄제휴
호리바제약소	2012.8.30	의료용 시약	인도	직접투자/연산 2,000톤, 투자규모 약 2억엔
IHI	2012.8.31	철강	룩셈부르크/폴워스	직접투자/일본에 합작회사 설립, 출자비율 50%, 아시아에서 제철소설비의 설계·판매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③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1) 『근년 엔고가 일본제조업 설비투자에 미친 효과』 재무성재무종합정책연구소, 8월28일

*출처:http://www.mof.go.jp/pri/research/discussion_paper/ron244.pdf

(2)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존재』 내각부, 8월29일

*출처:http://www5.cao.go.jp/keizai3/monthly_topics/2012/0828/topics_010.pdf